

더 진화한 'GPT-4'... 美 변호사 시험 상위 10% 성적 기록

4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출시
그림·영상 넣어도 답변 내놔
인간·컴퓨터 언어까지 구사
한국어 정확도 77%까지 개선
거짓 텍스트 생성 등 과제 여전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화면. /뉴시스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GPT-4'는 냉장고 안의 재료 사진을 입력하니 바로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몇 개를 보여줬다. 이미지나 영상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그에 걸맞는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각종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어 성능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1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PT-4는 챗GPT에 적용됐던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4개월 만에 출시돼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손글씨, 사진 및 영상 인식해
GPT-4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물론 영상까지 입력할 수 있어, 문장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림을 넣어도 답변

을 내놓는다. 그레그 브록맨 오픈AI 시장은 GPT-4의 새로운 활용법을 보여줬다. 우선 시연을 통해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영상을 6개 문단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여줬다. 또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찍어 입력하니 AI는 냉장고 속 재료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를 소개했다.

오픈AI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진, 영상이 무엇을 파는 지 파악하는 AI 기술은 있었지만, GPT-4는 인간은 물론 컴퓨터의 언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원

하는 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GPT-4는 또 약간의 유머감각도 탑재했다고 평가된다. 가수 마돈나에 대해 새로운 농담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GPT-4는 "마돈나가 기하학을 배우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다양한 각도로 포즈를 취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라고 답변했다. GPT-3.5가 "마돈나가 은행에 간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돈을 빌리려고"라고 답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능이 '경종' 올라

선 것이다.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 차지

각종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을 보여준 것도 놀라운 성과다. GPT-3.5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상위 60% 수준에 그쳤는데 놀랄 정도로 성과 개선을 보여줬다.

오픈AI는 미국 내 객관식 시험 40개를 GPT-4와 GPT-3.5에 제공하고 시험을 치게 했다. GPT-4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에서 상위 10%를 기록했다. 또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GPT-4는 400점 만점에 298점을 기록하며 상위 10%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읽기, 쓰기 시험과 수학 시험에서도 GPT-4는 백분위 93과 89를 기록해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GPT-4는 한국어 정확도가 무려 77%까지 개선됐다. 이는 GPT-3.5의 영어 이해도인 70%와 유사한 수준이다. GPT-4는 무려 2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 GPT-4의 영어에 대한 정확도는 85.5로, GPT-3.5가 70.1%를 기록한 것에 비해 15.4%가 높았다. 답변 채택률도 높아졌다. 오픈AI의

명령어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5214개 중 3660개인 70.2%가 GPT-4의 답변을 채택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여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NYT는 "시스템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해하지 못 해 완전히 거짓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다"며 "최신 암 연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요청하니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GPT-4는 미래 전망을 제시하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독창적인 추론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전망을 종합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은정 업스테이지 최고과학책임자(CSO)는 "GPT-4는 엄청난 혁신으로 놀라운 문제풀이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언어적, 수리적, 논리적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이해가 떨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한다. 롱테일 질문이나 추론형 질문을 물어보면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효성티앤씨, 섬유협력사 ESG 역량 키운다

6월까지 11개 협력사 대상
임직원 교육·컨설팅 등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회장(사진)이 섬유업계 중소 협력사에 ESG 역량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준다.

효성티앤씨는 16일 협력사들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EU 등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협력사의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결정됐다.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

조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과 환경 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 ▲ESG 진단 및 가이드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력사의 ESG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힘든 중소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티앤씨는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중

소 협력사들의 친환경 인증 발급도 지원한다.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이 ESG 규제 대응 등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과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바이오 섬유인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로 원단을 제작하는 21개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GRS ▲S GS 에코프로덕트마크 인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SKT, 핀드롭과 음성인증 AI 서비스 출시

최대 정확도 98% 수준 성문 등록
AI 컨택센터 상담시간 대폭 단축



SKT 이규식 Enterprise AI사업담당(왼쪽)과 핀드롭 마이클 휴즈 부사장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은 글로벌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Pindrop)과 AI(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대상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음성인증 기술은 이용자의 고유 음성을 판별하여, 추가 인증 없이 간단한 음성만으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AI 컨택센터의 경우, 음성인증 기술 활용시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미국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은 최대 정확도 98% 수준에 대화 음성으로 성문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버라이즌,

/채윤정 기자

금호타이어 獨 車전문지 성능평가 국내 업체 중 '최상위'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아데아체(ADAC)와 아우토 빌트가 실시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아데아체 테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ECSTA) HS52'가 테스트 결과 8위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테스트 평가항목은 마른 노면/젖은 노면의 주행 만족도와 마일리지/마모/소음 등 환경적 균형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동국제강 스틸샵서 '정품 후판 정척재' 판매

주문 즉시 생산 방식으로 신뢰 더해



동국제강이 자사 철강 전자상거래 사이트 '스틸샵'에서 'KS인증 정품 후판 정척재(사진)' 판매 서비스를 오픈하며 안전 철강재 수요 공략에 나선다.

16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후판 정척재'는 지정 규격(2438x6096) 후판이다. 교량이나 건설용 보강재, 철강 구조물, 플랜트 등에 쓰인다. 비조선 후판 연 수요 350만톤 중 약 40%를 차지한다. 'KS인증 정품'은 항복강도 KS SS275를 충족하는 정척재를 말한다.

스틸샵은 '주문 즉시 생산' 방식으로 신뢰를 더했다. 구매자는 스틸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시간·장소 구애없이

구매할 수 있다. 물량과 납기 선택도 자유롭다. 주문 완료 시 동국제강 당진공장에서 즉시 만들어져 원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가격도 스틸샵 기존 품목 대비 저렴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2026년까지 연간 25만톤 판매 규모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U+tv서 티빙 본다... LGU+, 라인업 개편

티빙과 홈서비스 협력 강화
전용 요금제·부가서비스 출시

최신 방송 VOD,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인기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U+tv에서 티빙 보세요"
LG유플러스가 OTT TV 라인업 개편에 나선다.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인 LG유플러스와 티빙이 홈서비스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서비스 U+tv에서 OTT 서비스 '티빙'을 볼 수 있도록 'OTT TV' 라인업을 개편하고, 전용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티빙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47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OTT 서비스다. 티빙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편리한 시청경험,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OTT TV를 론칭한 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힘써왔다. OTT TV에서는 넷플릭스·디즈니+·유튜브 등 OTT와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홈트Now 등 인기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OTT TV 라인업 개편으로 TV 대화면을 통해 환승연애·술꾼도시여자들·유미의세포들 등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또 tvN, Mnet, JTBC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과 파라마운트+의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채윤정 기자